

95. 2. 13

“일주일에 44시간 노동은 너무길다”

자동차업계 근로시간 단축 붐

현대 42시간 근무 추진...기아 42시간·대우 43시간 확정

근로기준법상 44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이 자동차업체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근로시간의 단축 움직임은 시간의 근무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효과보다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지향해 궁극적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토요 격주휴무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날 쉬는 중복휴가제 부활 △통상급대비 12.16%의 임금

확정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토요 격주휴무제를 회사측이 수용할 경우 현재의 주당 44시간의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앞서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단체협상을 통해 국내 대형 제조업체 가운데서는 최초로 주당 근로시간을 42시간으로 줄였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국의 지적을 받아 비공식적 별도합의 형식으로 통과시켰으며 대외 공표는 하지 않았다.

대우자동차 노사도 올해 단체협상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3시간으로 1시간 줄이기로 공식 합의했으며, 내년부터는 42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데 비공식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당 42시간의 근무조건에 합의할 경우 국내 자동차 3사가 모두 주당 근로시간 44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근무,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50%의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주·야간 2교대 작업으로 하루 20시간씩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야간작업의 경우 8시간에 한해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근무분에 대해서는 1백%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 수출주문이 몰려 잔업·휴일근무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려 해도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단체협상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계속 단축돼 주 40시간까지 갈 경우 토요일에 공장을 가동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